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다짐

10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9일(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23년 1만 2천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발주자·도급인으로서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국가철도공단,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③ 한국농어촌공사, ④ 한국도로공사, ⑤ 한국수력원자력(주), ⑥ 한국수자원공사, ⑦ 한국전력공사, ⑧ 한국철도공사, ⑨ 한국토지주택공사, ⑩ 한국환경공단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회의 개요 1부.
2. 공동선언문 1부.
3.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1부.
4.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체계도 1부.

담당 부서 <총괄>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892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안영곤 이상백	(044-202-8823) (044-202-8825)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평가실	책임자	부 장	양목규	(052-7030-151)
		담당자	차 장	심정훈	(052-7030-155)



## 붙임 1

##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요

- ❖ 주요 건설공사 발주·도급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및 중대재해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당부

\* (10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 (일시) '24. 1. 29.(월) 14:00 ~ 16:40
- (장소) 인천국제공항공사 현장 점검 및 서관 5층 대회의실
- (참석) (우리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지원과장 등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보건평가실장, 건설안전실장
  - (공공기관) 주요 공공기관(10개) 대표 등
- (주요내용) 공항공사 수하물처리시설(Baggage Handling) 현장 점검
  -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안전보건활동 사례 발표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 안착 방안 토론
- (세부일정)

\*현장방문은 공항 보안문제로 비공개, 리더회의는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공개

일정·소요시간	주요내용		비고
1부 <현장방문> 14:00 ~ 15:00		■ 현장 도착	
	(10')	■ 안전보건관리활동 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30')	■ 현장 점검	
	(20')	■ 회의장 이동	
2부 <리더회의> 15:00 ~ 16:40	(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05')	■ 인사말씀	장관
	(05')	■ 추진경과 및 공동선언문 내용 설명	사회자
	(05')	■ 공동선언문 채택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0')	■ 사망사고 현황 및 산재예방정책방향	산재예방지원과장
	(20')	■ 안전보건활동 사례 발표(2개사)	①도로공사/②수력원자력
	(50')	■ 자유토론 및 마무리말씀	주재: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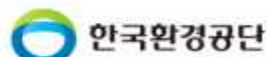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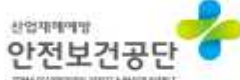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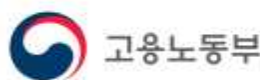
언론  
공개

##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하여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구성하고 아래 사항을 공동 이행할 것을 선언한다.

1. 안전보건리더회의 참여 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한다.
2. 안전보건리더회의 참여 공공기관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모범적인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달성한다.
3. 안전보건리더회의 참여 공공기관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 발주공사 현장 등 모든 영역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천한다.

2024년 1월 29일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세요.

**1단계**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www.kosha.or.kr>  
 (모바일) 우측의 QR Code 스캔



**2단계**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진행 되나요?



##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